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광주·전남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3
해남 '땅끝바다 캠핑 패스티벌' ▶13
KIA 타이거즈, 삼성과 개막전 1승 1패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08호 1판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음력 3월 1일)

'아웃렛 전쟁' 불붙었다 전남 3곳에 건립 추진

나주 혁신도시에 신세계사이먼 여수박람회장엔 다국적 아웃렛 광양 덕례리 LG패션 건립예정

용도 변경·일부 주민 반발 과제

아웃렛의 전남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호남·충청권 첫 입점이라는 프리미엄 선점과 향후 중국·일본 관광객 수요까지 내다보며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역시 지역발전 공약으로 '아웃렛 유치'를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 일부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전남도는 30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중부권인 나주에 이어 동부권인 여수·광양에도 아웃렛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수의 경우 박람회장 재활용 문제로 고민하던 해양수산부가 홍콩의 초저가 명품 아웃렛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쇼핑도시'에서 성업중인 초저가 명품 아웃렛은 기존 아웃렛보다 할인율이 높아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고객들도 끌어 모을 만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들 초저가 명품 아웃렛 업체 외에도 테마파크와 키즈타운 등 해외 5개 업체와도 접촉을 하고 있고 국내 업체 3~4곳에도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사후활용계획 변경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승인 여부와 인근 업체들의 반발이다. 기존 사후활용계획이 여수박람회장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가 박람회장 매각을 통해 환수할 예정인 3846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와 함께 임대를 통한 상환 모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방침으로, 6개월 뒤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역상인들의 반발도 풀어야할 숙제다.

광양시도 적극적이다. 광양제철이 주춤하고 광양만의 정체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전남도, 광양시, LG패션 등이 '광양 LG 패션 아웃렛' 입점 논의를 시작한 뒤 올해 초부터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 등지에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웃렛 필요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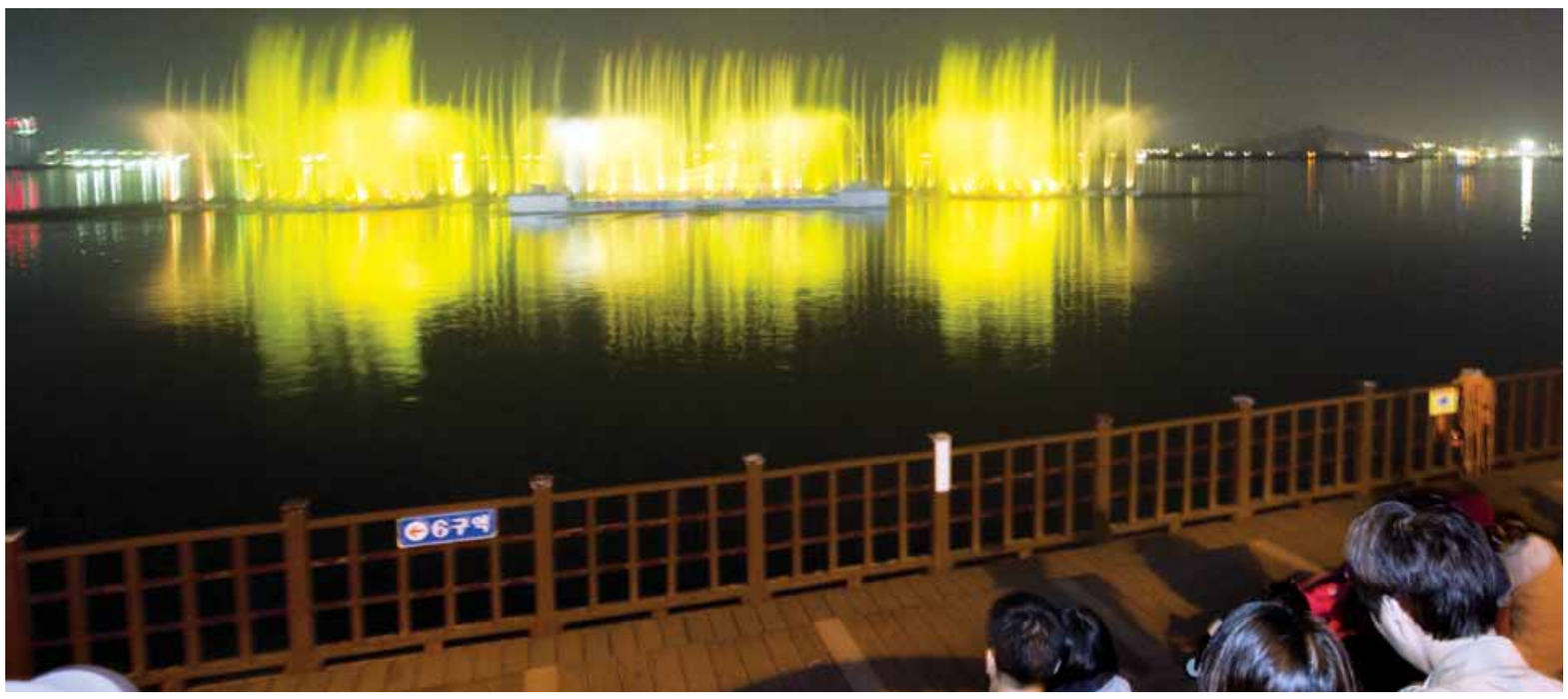
LG 패션 아웃렛은 광양읍 덕례리 일원 7만6583㎡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기존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200개의 매장과 영화관, 예식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와 LG패션 측의 복안이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신세계사이먼이 나주 혁신도시에 미화 1억 달러(약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투자유치 의향서'를 전남도, 나주시와 체결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지역 입점추진 아웃렛

- **나주 혁신도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
- **여수 박람회 부지** - 다국적기업 아웃렛
- **광양** - LG패션 아웃렛



분수처럼 흩어지는 목포의 봄 한국관광기네스로 선정된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가 30일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색색의 물기둥을 쏘아올리고 있다. 공연은 화~목, 일요일은 2회(밤 8시, 밤 8시40분), 금·토요일은 3회(오후 8시, 오후 8시40분, 오후 9시20분) 운영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도지사 후보 경선 '컷 오프' 변수

새정치 경선일정 주내 윤곽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30일 공천위(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가동된데 이어 공천 룰 논의를 위한 상임최고위원회가 개최됐다.

31일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가 시작되며 경선 룰과 경선 일정도 이번 주 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밤, 비공개 상임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 룰을 집중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의된 공천 룰 등을 31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5일 이전에 경선 일정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공천 준비 작업에 나선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일 6·4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위를 구성한데 이어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 공천 원칙과 룰에 대해 논의했다. 공천위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후보자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천위원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일부터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차츰 간격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새 정치'를 표방하며 치르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및 능력, 본선 경쟁력 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천 룰 등을 놓고 구 민주계와 구 새정치연합 측의 셈법이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방법과 컷-오프(예비경선) 도입 여부 등을 두고 후보자들의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30일 상임최고위에서 논의된 경선 룰이 31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선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연합 공천 일정

- 3월 30일 ····· 상임최고위원회의 공천 룰 논의
- 3월 31일 ····· 공천 룰 의원총회 보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 4월 5일 ····· 경선 일정 확정
- 4월 말 ····· 후보자 결정 완료

광주·전남 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광주 34명 평균 8억3234만원
전남 87명 평균 11억4841만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광주지역 공개 대상자 34명의 평균 재산액은 8억3234만원이었고, 전남 87명의 평균재산은 11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시장의 재산은 38억310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강 시장의 재산은 지난해에 비해 1억6000여만원 줄었다.

광주시의원의 경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진선기 의원으로 19억5800만원을 등록했다.

전남에서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등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87명 중 59명(68.8%)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28명은 감소했다.

박준영 지사는 1년 전에 비해 1300여만원이 감소한 22억6800만원을 신고했고, 목포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명예퇴직한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0억9400만원이 감소한 108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시·군 중 형사재판으로 재산이 등록되지 않은 홍이식 화순군수를 제외한 21명의 자치단체장 중 16명(76.2%)이 증가하고 5명이 감소했다.

도의원 61명 중에서는 41명(67.2%)의 재산이 증가한 가운데 임명규 의원이 72억24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억9300만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4억5100만원을 각각 신고했고 이 지역 법원·검찰·경찰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광주지검 변찬우 검사장이 17억5100만원을 등록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